

대도시-농어촌 지역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관련 변인에 대한 비교 연구

- 대구광역시와 경북 농어촌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

김광수

이 연구는 상이한 지역환경, 즉 대도시인 대구광역시와 경북의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들을 비교분석하면서, 지역별로 그들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유형이 어떻게 상이한지, 그리고 그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은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는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청소년들의 실제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생태체계를 개인인구학적 체계, 개인심리 체계, 가족 체계, 인터넷환경 체계, 교육환경 체계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 체계에 해당하는 하위 독립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첫째, 대구광역시에 비해 경북 농어촌 지역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두 지역 모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에 의한 영향력 차이는 대구광역시 청소년의 경우에만 연령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두 지역 청소년들 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의 하위 체계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분석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인터넷 중독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하위체계는 대구광역시 청소년의 경우에는 교육환경 체계이며, 경북 농어촌 청소년의 경우에는 인터넷환경 체계였다. 넷째, 생태체계에 속하는 전체 독립변인들 중에서 종속변인에 가장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개별 독립변인은, 대구광역시 청소년의 경우에는 과외학습 및 여가활동환경 변인이었으며, 그 다음이 인터넷 사용시간 변인이었으며, 경북 농어촌 청소년의 경우에는 인터넷 사용시간 변인이 가장 설명력 있는 독립변인이었으며, 그 다음이 자기통제력 변인이었다. 분석결과에서 청소년의 거주지역에 따라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하위 생태체계와 변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거주지역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과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만 그들의 인터넷 중독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청소년, 인터넷 중독, 생태체계 변인, 비교 연구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994년 'kornet'이라는 인터넷 상용서비스를 통해서 인터넷 상용화가 시작된 한국사회에서 현재의 한국 청소년들은 인터넷과의 접촉을 유년기부터 경험한 초기 세대이다. 이들에게 인터넷은 일상의 생활수단이며, 동시에 문제행동의 근원으로 작용하는 양면적 문화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타인과의 관계 통로로 이용하며, 정보의 저장고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여가와 오락을 위해서 인터넷과 밀착되어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청소년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주된 문제행동은 '인터넷 중독'¹)일 것이다.

한국 정부가 2010년 후반기에 전국 9~39세 인구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2010년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2011)에 의하면, 이 연령층의 인터넷 중독률은 8.0%로 2009년 보다 0.5%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²) 그러나 청소년의 중독률은 성인의 중독률 5.8%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12.4%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고위험군의 비율도 전년도 대비 0.5% 증가했다. 또한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전국 만 6세 이상의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발표한 <2010년 정보문화 실태조사>(2011)에서는 국내 인터넷 일탈행동의 주 연령층은 10대와 20대로 나타났는데, 10대 청소년은 미검증 정보유포, 타인의 개인정보 오남용, 타인 비방, 신분 위조 등의 일탈행동에서는 전 연령층 중에서

1) '인터넷 중독'이라는 개념은 1996년 골드버그(Ivan Goldberg)가 '인터넷 중독 장애(Internet Addiction Disorder)'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후, 같은 해 영(K. S. Young)이 "인터넷 중독: 새로운 임상장애의 출현"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인터넷 중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일치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인터넷 증후군(Internet Syndrome), 인터넷 의존(Internet Dependence), 병리적 인터넷 사용(Pathological Internet Use), 사이버 공간 중독(Cyberspace Addiction), 가상공간 중독(Virtual Addiction), 인터넷게임 중독(Internet Game Addiction) 등의 다양한 용어들이 혼재되어 선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2) 한국 정부는 2004년에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를 처음 실시한 이후, 2006년의 조사부터 국가통계로 인정받고 있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면서, 전체 평균의 2배 이상의 일탈행동을 하고 있으며, 콘텐츠무단다운로드와 인터넷 자료표절 행동에서도 20대 다음으로 높은 일탈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후반에 매우 드물게 행해지기 시작하여(양소남, 1997; 송원영, 1998;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1998; 강지선, 1999; 김세영, 1999; 윤재희, 1999), 2000년 이후 인터넷 중독이 주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면서 개인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에 의해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다. 연구주제별로 대별해 보면, 인터넷 중독의 결과로서의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조사한 연구들(양돈규, 2000; 천정웅, 2000; 조남근·양돈규, 2001; 김진희·김경신, 2003; 성윤숙, 2004; 최은정·김형모, 2006; 김태현, 2007; 서경환, 2007; 탁수연·박영신·김의철, 2007; 오창규·김진희, 2009; 조운주, 2010; 조춘범, 2010)과 인터넷 중독척도의 개발과 관련된 연구들(이시형·이세용·김은정·오승근, 2000; 강만철·오익수, 2001, 2002; 이형초·안창일, 2002; 김은정·이세용·오승근, 2003; 이경옥·김민하·김승옥·김혜수, 2006; 김승옥·김혜수·이경옥, 2007)이 있으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제는 인터넷 중독의 원인을 규명하거나,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결과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계를 분석한 것들이었다.

현재까지 청소년과 관련된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이 도시 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농촌지역이나 도서지역 등에 관한 연구들(이형하, 2003; 박미자·이귀상, 2004; 이석봉, 2005; 김광수, 2009)은 매우 한정되어 나타나고 있다. 하물며 이들 연구들은 모두 개별 지역에 한정해서 그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었으며, 인구 규모와 지역 특성 면에서 상이하게 구분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문제를 직접적으로 비교분석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상이한 지역환경, 즉 대도시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문제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대도시인 대구광

역시와 농어촌지역으로 분류되는 경북 내 군(郡)단위 지역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유형이 어떻게 상이한지, 그리고 그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은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이 연구는 이전 연구들에서 누락되어온 상이한 지역환경에 처한 연구대상들 간에 대한 비교연구, 즉 인구 규모와 지역 특성이 상이하게 구분되는 공간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비교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이 분야 연구범위의 외연을 확장하고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인터넷 중독의 원인규명에 대한 생태체계적 접근방법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관심을 가지고 수행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인터넷 매체 자체의 속성에 해당하는 변인들에 주목하거나,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적 속성, 또는 그를 둘러싼 외부 환경에 귀속된 변인들을 추적하여 그 관련성을 설명해왔다. 먼저, 인터넷 매체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 속성에 연유할 수 있는 원인으로 사용자의 익명성을 담보해 주는 효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해 주는 개방된 소통방식,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극복하게 해주는 정보접근성의 확장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속성들은 인간이 현실세계에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욕구의 대안적 충족수단을 제공해 주는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탐닉하게 하여 중독에 빠지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중독을 초래할 수 있는 인터넷 자체의 속성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용자들이 모두 인터넷에 중독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다른 변인들의 의미를 부각시킨다. 즉 인터넷 매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중독적 속성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개별 사용자에게 귀속된 특성들과 그와 상호작용하는 환경적 특성들을 통해서 인터넷에 중독되는 사

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짓는 복합적인 변인들을 찾아내는 것이 인터넷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김광수, 2009). 그 중에서 거주 지역은 그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의 행동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요소를 배태하고 있는 기본적인 외부환경을 구성하고 있다(전신현, 2004; 김세원, 2009).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한국에서 상이한 지역환경, 즉 대도시와 농어촌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인터넷 매체 자체의 속성을 넘어 청소년 개인의 속성과 그와 상호작용하는 환경적 특성과 관련된 복합적 변인들을 찾아내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틀 속에서 인간의 행동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결정되어 간다는 생태체계적 관점을 중심으로 그 관련 변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생태체계적 관점은 개인이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상호 간의 교류 과정을 통해 영향을 주고받으며 역동적인 평형상태를 유지하거나 변화해 가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관점은 다양한 인간 행동의 경향성을 설명하는 기존의 다양한 이론들을 통합적으로 구성한 것이어서 인간 행동의 복합적인 원인을 규명하는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석단위에 적용할 수 있는 유연한 방법을 제공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의 이면에는 생태체계를 구성하는 체계 수준이 연구자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어 그 결과에 대한 실증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단점도 있다(김광수, 2009). 예를 들면, 버클리(W. Buckley, 1967)는 체계의 조직적 속성인 전체성의 수준을 기준으로 개인체계, 가족체계, 사회와 문화체계로 나누어 개별 체계들의 상호작용 효과와 전체로서의 생태체계에 대한 영향을 연구한 반면에, 브론펜브레너(Urie Bronfenbrenner, 1979)는 유기체와 상호작용하는 환경체계를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로 나누고 있어 그들 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관찰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 연구는 상이한 지역환경에 거주하는 청소년들 간의 인터넷 중독 경향성 차이를 설명하는 변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우선 청소년 개개인의 인구사회학적 속성과 심리적 성격의 설명력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분석결과와, 청소년들의 생활환경이 가족, 학교, 학원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를 둘러싼 생태체계를 개인인구학적 체계, 개인심리 체계, 가족 체계, 인터넷환경 체계, 교육환경체계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 체계에 해당하는 하위 독립변인들을 살펴볼 것이다.³⁾

3.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독립변인들

1) 개인인구학적 체계의 독립변인

인간은 동일한 환경의 자극을 받을 때 반드시 동일한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환경 속의 개인'의 구조 속에서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것이며, 생태체계 속에서 환경의 영향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 역시 중요한 변인임을 의미한다. 특히 성장 발달과정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청소년의 행동은 그 청소년 자신에게 귀속된 개인적 특성만으로도 타인과 다른 반응을 보이는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개인인구학적 체계의 하위 독립변인으로 성별 변인과 연령 변인을 살펴볼 것이다.

선행연구 결과들의 대부분은, 인구학적 변인인 성별에 따라 인터넷에 중독되는 경향은 남성의 경우가 여성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성별에 따라 인터넷 중독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거나(양소남, 1997; 류진아·김광웅, 2004; 조은영, 2005; 전영자·서문영, 2006), 남자보다 여자가 더 인터넷 중독 경향성을 보인다는

3) 생태체계를 구성하는 하위체계와 독립변인들은 농어촌 지역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경향성을 조사한 연구자의 선행 연구(김광수, 2009)에서 검증한 내용들을 반영하여 재구성하였다.

예외적인 연구 결과(김형준 외, 2002)도 찾아볼 수 있다.

연령에 따른 인터넷 중독 수준의 차이를 조사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10대 청소년의 중독 경향성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1장에서 제시했듯이 최근 정부 조사에서도 10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은 성인의 2배 이상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 연구는 그 연구대상이 청소년 연령층에 한정되어 있어, 그 범위 내에서 나타나는 인터넷 중독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자들의 연령을 학년급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2) 개인심리 체계의 독립변인

가. 자기존중감

쿠퍼스미스(S. Coopersmith, 1967)는 자기존중감을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형성하고 유지하는 평가로서, 긍정 또는 부정의 태도로 표현되고 자신이 중요하고 유능하며 성공적이고 가치있다고 보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존재와 가치에 대해 스스로 어떤 느낌과 생각을 가지느냐하는 의식으로서, 실재 현실에서 자기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이 가상현실로 도피하여 실제적 자신을 숨기고 가상적인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인터넷은 중독적인 공간이 될 수 있다. 청소년기는 자아형성의 중요한 발달 시기이므로, 청소년의 자기존중감 정도가 인터넷 중독에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

나. 자기통제력

자기통제력은 충동성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서, “선택의 상황을 근거로 하여, 지연되지 않은 작은 결과보다 더 지연되지만 더 큰 결과를 선택하는 것”(A. W. Logue, 1995)을 의미한다. 즉 자기통제의 실패는 충동조절 장애 또는 중독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쉽다. 인터넷 중독은 기본적으로 충동조절의 문제이고,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 목표를 설정하거나 욕구충족을 위해 기다리지 못하고 가상공간

을 통해 즉각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가상공간에 집착하면서 이에 중독적 행동을 보이게 될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다.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자신의 능력에 대해 내리는 판단을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개인이 자신의 존재나 가치에 대해 가지는 평가 개념인 자기존중감과 구분된다. 반두라(A. Bandura, 1977)는 “계획된 수행 형태를 얻는데 필요한 행동과정을 실시하고 조직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을 자기효능감이라고 개념화하면서,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행동변화를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해서 인지적 관점에서 자기효능감 이론을 정립했다. 실제 현실에서 가지는 자기효능감의 수준은 가상공간의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3) 가족 체계의 독립변인

가족 체계는 청소년에게 정서적 지지와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고 사회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생활의 장이며, 그 내부의 구성원들과 주요한 상호작용과 변화를 공유하게 하는 체계이다. 가족 체계는 청소년기에 처한 개인의 행동 경향에 근원적인 영향을 주는 환경으로서 그 중요성은 선행 연구들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가족 체계의 변인들로서, 부모의 인터넷 사용 통제,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 등을 들 수 있다.

가. 부모의 인터넷 사용통제

이 독립변인은 청소년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과 용도에 대해 부모가 직간접적으로 제재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이 변인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선행 연구들은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즉 부모의 인터넷 사용 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 자녀의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다는 연구들(청소년보호위원회, 2000; 김혜원, 2001; 조춘범, 2001; 강만철·오익수, 2002; 이해경, 2002)이 있는 반면에, 이와 상

반된 연구 결과들을 제시한 선행 연구들(류진아·김광웅, 2004; 권정혜, 2005; 이숙진, 2007)도 있어서 부모의 인터넷 사용통제 변인이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에 대해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나.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보편적으로 보이는 태도로서, 청소년의 심리적·행동적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V. Gegas & M. Seff, 1981). 부모의 양육태도의 차원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하위 범주로 분류되고 있다. 이승국의 연구(1998)와 최효순의 연구(2001)에서는 수용-거부의 차원과 자율-통제의 차원으로 나누어 부모의 양육태도를 조사하였으며, 조춘범의 연구(2001)에서는 권위적·수직적 태도-민주적·수평적 태도의 차원으로 분류하였고, 정진태의 연구(2003)에서는 적대지향-애정지향의 수준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수용-거부의 차원과 자율-통제의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다.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은 가족구성원 간 유대관계의 수준과 직결되는 상호작용 행위의 표출양식의 척도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은 그 발달 시기의 특성 상,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상호 간의 신뢰와 자아 형성에 대한 긍정적 지지를 얻어가면서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으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심리적 긴장을 완화해 갈 수 있다(G. M. Barnes & M. P. Farrell, 1993). 따라서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때, 자녀는 좌절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대안적인 의사소통의 통로를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선행 연구들 가운데에는, 부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인터넷 중독에 더 심하게 중독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연구(정민희, 2003; 조아미·방희정, 2003; 이숙진 외, 2005)들도 있지만, 이들 간에 유의한 관계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는 연구(류진아·김광웅, 2004)도 있다.

4) 인터넷환경 체계의 독립변인

국내의 인터넷환경 체계는 1994년 한국통신이 국내 최초로 인터넷 상용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발전을 거듭하며 지역적 와이브로의 상용화 등의 진화를 지속하며, 청소년들의 행동 양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 체계로 부가되고 있다. 이 연구는 변화하고 있는 인터넷환경 체계 중에서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하위 변인으로 인터넷의 가용성, 인터넷 사용시간, 그리고 PC방 사용환경 등을 살펴볼 것이다.

가. 인터넷의 가용성

인터넷 가용성이란, 청소년들이 장소에 관계없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 인터넷에 쉽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이에 중독될 가능성도 더 높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의 가용성이 인터넷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류진아·김광웅, 2004)도 제시되고 있다.

나. 인터넷 사용시간

인터넷 사용시간과 인터넷 중독과의 정적인 관계를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론에 근거한 가설을 검증하여 정적인 관계를 확인시켜 주는 연구들(김혜원, 2001; 류진아·김광웅, 2004; 이지향, 2005; 조은영, 2005; 전영자·서문영, 2006;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7)도 있지만, 유의한 관계가 없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한 연구(이숙진, 2007)도 있었다.

다. PC방 이용환경

PC방은 청소년들의 일상생활 속에 상업화되고 공유된 인터넷환경으로서 자리잡고 있다.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대한 PC방 이용환경 변인의 영향력을 조사한 선행연구들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강만철·오익수, 2002; 김형준 외, 2002; 류진아·김광웅, 2004).

5) 교육환경 체계의 독립변인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생태 체계는 교육환경 체계이다. 청소년들은 이 체계 속에서 교사와 친구를 만나고, 학업과 여가활동을 영위해 가고 있다.

가. 교사의 지지

청소년기는 '의미있는 타자'의 범위가 부모와 가족구성원을 넘어서, 교사나 또래 친구집단 등으로 확대되어 가는 시기이다. 교사는 청소년들이 가장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성인이며, 청소년은 교사를 통해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문화양식을 습득해 가기 때문에, 교사와 관계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이 교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수록, 인터넷 중독에 빠질 개연성이 낮다는 연구 결과(한복희, 2001)도 있는 반면에, 인터넷 중독집단으로 분류된 청소년들이 비중독집단의 청소년에 비해 교사의 지지를 높게 지각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이계원, 2001)도 있었다.

나. 친구관계

청소년의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는 그들의 발달 시기의 특성 상 사회적 적응성 뿐만 아니라 정체성과 행동 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일상적인 친구관계가 좋을수록, 인터넷에 중독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김혜원, 2001; 조춘범, 2001; 이해경, 2002; 류진아·김광웅, 2004; 권정혜, 2005)들도 있었지만, 친구관계와 인터넷 중독 간에는 유의한 상관성이 없다는 연구(안석, 2000; 이숙진, 2007)들도 있었다.

다. 학업성적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 학업성적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인식은 일상적 통념이긴 하지만, 이 분야의 선행연구들은 그 인과관계의 설정에서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청소년들의 학업성적에 주목

하고 있다. 즉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중독될 개연성이 더 높다는 분석결과(조춘범, 2001; 이해경, 2002; 류진아·김광웅, 2004; 이숙진, 2007)도 있으며, 학업성적과 인터넷 중독 간에 유의한 상관성이 없다는 분석결과(주애란·박인혜, 2005)도 있었다.

라. 과외학습 및 여가활동환경

한국사회에서 학교가 청소년들의 교육환경을 구성하는 유일한 공간은 아니다. 사교육이라는 명칭으로 일상화된 과외학습 환경과 학습이외의 일상적 여가활동 환경도 청소년의 생활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볼 수 있다.

4. 연구문제 및 측정도구

1) 연구문제

이 연구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가. 대도시-농어촌지역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의 수준은 어떠하며, 두 지역 간 청소년들의 중독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나. 대도시-농어촌지역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들의 유형은 무엇이며, 두 지역 간 청소년들의 중독에 대한 변인들의 영향력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나-1. 대도시-농어촌지역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개인 인구학적 체계 변인(성, 연령)들의 영향력은 어떠하며, 두 지역 간에 이 변인들의 영향력 차이가 있는가?

나-2. 대도시-농어촌지역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개인 심리 체계 변인(자기존중감,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들의 영향력은 어떠하며, 두 지역 간에 이 변인들의 영향력 차이가 있는가?

나.3. 대도시-농어촌지역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가족 체계 변인(부모의 인터넷 사용통제,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들의 영향력은 어떠하며, 두 지역 간에 이 변인들의 영향력 차이가 있는가?

나.4. 대도시-농어촌지역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인터넷환경 체계 변인(인터넷 가용성, 인터넷 사용시간, PC 방 이용환경)들의 영향력은 어떠하며, 두 지역 간에 이 변인들의 영향력 차이가 있는가?

나.5. 대도시-농어촌지역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교육 환경 체계 변인(교사의 지지, 친구관계, 학업성적, 과외 학습 및 여가활동 환경)들의 영향력은 어떠하며, 두 지역 간에 이 변인들의 영향력 차이가 있는가?

다. 대도시-농어촌지역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생태체계의 하위체계 및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측정도구

가. 종속변인: 인터넷 중독

대구광역시와 경북 농어촌지역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영(K. S. Young, 1998)이 만든 '인터넷 중독검사'를 한국 청소년들에게 적용하기 위해 변안·수정한 김은정 외(2003)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0문항으로 구성된 각 문항별 0~5점의 6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의 합이 20~49점은 평균이용자, 50~79점은 중독성향자, 80점 이상은 중독군으로 분류하였다. 이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89였다.

나. 독립변인

① 자기통제력

자기통제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허쉬와 고트프레드슨(T. Hirschi & M. R. Gottfredson, 1990)이 사용한 척도와 김현숙(1997)이 변안하면서

청소년에 적합하도록 수정한 자기통제평정척도를 참고로 하여, 남현미(1999)가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0문항으로 구성된 5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79였다.

②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로젠버그(M. Rosenberg, 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0문항으로 구성된 5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의 합이 클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76이었다.

③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셰러 등(M. Sherer, et al., 1982)의 척도를 김현숙(1997)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3점 리커트 척도이다. 이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72였다.

④ 부모의 인터넷 사용통제

부모의 인터넷 사용통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시형 외(2000)이 개발한 척도를 조은영(2005)이 5점 리커트 척도로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인터넷 사용통제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78이었다.

⑤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이 승국(1998)이 개발한 척도를 최효순(2001)이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수용-거부와 자율-통제의 두 차원으로 나누어 양육태도를 측정하였으며, 18문항으로 구성된 5점 리커트 척도이다.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과 자율의 태도에 접근한다는 의미이다. 이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77이었다.

⑥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김진희(1989)가 개발하고 오미경(1997)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연구자가 부·모의 구분을 없앤 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이 척도는 7문항으로 구성된 5점 리커트 척도이다.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 또는 모의 양육태도가 수용과 자율의 태도에 접근한다는 의미이다. 이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74였다.

⑦ 교사의 지지와 친구관계

박지원(1985)이 개발한 척도를 윤혜정(1993)이 수정·보완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교사의 지지와 친구관계에 대해 25 문항으로 구성된 5점 리커트 척도이다.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청소년이 지각하는 교사의 지지가 높고 친구관계가 좋다는 의미이다. 이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교사의 지지는 .78 친구관계는 .74였다.

⑧ 과외학습 및 여가활동 환경

청소년의 과외학습 및 여가활동 환경에 대한 측정도구는 조은영(2005)의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10문항으로 구성된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81이었다.

⑨ 기타 변인들

성별, 연령(학년급), 인터넷의 가용성, 인터넷 사용시간, 청소년의 학업성적, PC방 이용환경 등에 관한 변인들은 단일 문항으로 구성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5. 자료 수집 및 분석의 방법

1) 조사 대상 및 자료 수집

대도시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문제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이 연구는 대도시인 대구광역시와 농어촌지역으로 분류

되는 경북 내 군(郡)단위 지역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대구광역시 7개 구와 1개 군(달성군)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구(군) 내에 소재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재학생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경상북도는 10개 시와 13개 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농어촌지역으로 분류되는 13개 군 지역 중에서 울릉군을 제외한 12개군(봉화군, 예천군, 의성군,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성주군, 칠곡군, 고령군, 청도군, 영덕군, 울진군)의 각 군 내에 소재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재학생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두 지역 각각에서 다단계 무선층화군집표집방법으로 각 구(군) 내 학교등급 별로 1개 학교를 표집한 후, 1개 학교에서 학년 단위로 10명 씩 30명의 학생을 표집하였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총 48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466부를 회수하였는데, 이 중에서 응답이 누락되거나 미흡했던 설문지 15부를 제외한 451부(중학생 246명, 고등학생 205명; 남학생 227명, 여학생 224명)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경북 농어촌지역의 경우, 총 72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689부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에서 응답이 누락되거나 미흡했던 설문지 75부를 제외한 614부(중학생 322명, 고등학생 292명; 남학생 313명, 여학생 301명)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총 1,065부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대구광역시의 경우, 2009년 12월 14일부터 2010년 1월 22일까지였으며, 경북 농어촌지역의 경우는 2009년 3월 30일부터 4월 17일까지였다. 비교조사 대상에 대한 자료 수집이 동일한 시기에 행해지지 않은 것과 고등학교 표집 시에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이 연구의 한계점으로 남아있다.

4) 달성군은 1995년에 대구광역시에 전 군지역이 편입되기 전부터 대구 인접한 지역으로서 도시적 특성에 노출되어 왔으며, 2011년 5월 현재 인구가 약 18만명을 초과하고 한 대도시의 구(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 분석 방법

이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17.0을 이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첫째, 각 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척도들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각 변인에 대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둘째, 비교분석을 위해 조사대상 전체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의 하위체계별 독립변인들의 영향력을 설명하기 위해 각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이 때 생태체계의 하위체계에 속하는 변인 군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먼저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해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과 공차한계(Tolerance Limit)를 검토하여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 종속변인에 대해 두 지역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독립변인들만을 추출하여 그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위계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6. 자료 분석의 결과

1) 대구광역시 및 경북 농어촌 지역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실태 및 차이분석

대구광역시와 경북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실태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영(1998)의 인터넷 중독척도를 근거로 하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척도 점수 80점 이상으로 심각한 '중독군'으로 분류되는 대구광역시와 경북 농어촌 청소년의 비율은 각각 8.2%, 11.1%이며, 척도 점수 50-79점에 해당되는 '중독성향자'로서 아

<표 1> 대구광역시 및 경북 농어촌 지역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수준과 차이분석

빈도(%)

인터넷 중독수준	대구광역시	경북 농어촌	계
평균이용자 (20-49점)	289 (64.1)	361 (58.8)	650 (61.0)
중독성향자 (50-79점)	125 (27.7)	185 (30.1)	310 (29.1)
중독군 (80점 이상)	37 (8.2)	68 (11.1)	105 (9.9)
계	451 (100.0)	614 (100.0)	1,065 (100.0)
평균	42.75	48.26	45.51
표준편차	12.19	14.08	13.61
χ^2	3.966*		

*p<.05, **p<.01, ***p<.001

직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만 중독의 성향을 보이면서 중독군으로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27.7%, 30.1%로 나타났다.

두 지역 간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chi^2=3.966$, $p<.05$)가 있었다. 이러한 유의미한 차이를 근거로 인터넷 중독의 실질적 평균값의 차이를 살펴보면, 대구광역시 청소년(42.75점)에 비해 경북 농어촌 청소년(48.26점)이 더 심각한 인터넷 중독 경향성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에서 중독군으로 분류될 수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9.9%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대구광역시 및 경북 농어촌 지역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생태체계 변인들의 영향

가.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대한 개인인구학적 체계 변인들의 영향

개인인구학적 체계 변인들은 전체 조사대상자의 인터넷 중독에 대해 7%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체계 변인들은 대구광역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대해 9%, 경북 농어촌 청소년에 대해서는 7%의 설명력을 가진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보면, 두 지역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연령(학년급)에 의한

<표 2>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대한 개인인구학적 체계 변인들의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인	대구광역시		경북 농어촌		전체	
	β	t	β	t	β	t
성별	.25	2.34**	.17	1.95*	.21	2.22*
연령(학년급)	-.19	-2.02*	-.11	-.47	-.14	-.76
F	8.81*		6.39*		8.13*	
Adj. R ²	.09		.07		.07	

*p<.05, **p<.01, ***p<.001

주) 성별은 더미변수 처리 (여자=0, 남자=1)

중독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청소년의 경우에만 연령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조사대상 청소년의 경우, 연령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대한 개인심리 체계 변인들의 영향

개인심리 체계의 모든 독립변인들은 두 지역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기존중감이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의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이 체계 변인들은 대구광역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대해 13%, 경북 농어촌 청소년에 대해서는 11%의 설명력을 가지며, 전체 조사대상 청소년의 그것에 대해서는 13%의 설명력을 가진다.

<표 3>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대한 개인심리 체계 변인들의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인	대구광역시		경북 농어촌		전체	
	β	t	β	t	β	t
자기존중감	-.17	-1.04**	-.05	-.91*	-.14	-.98*
자기통제력	-.27	-3.11**	-.21	-1.83***	-.24	-2.66***
자기효능감	-.13	-.97*	-.09	-.86*	-.11	-.89*
F	12.05*		10.13**		10.85**	
Adj. R ²	.13		.11		.13	

*p<.05, **p<.01, ***p<.001

<표 4>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대한 가족 체계 변인들의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인	대구광역시		경북 농어촌		전체	
	β	t	β	t	β	t
부모의 인터넷 사용통제	-.21	-4.26**	-.16	-2.98**	-.19	-3.13**
부모의 양육태도	-.09	-1.25	-.14	-2.71*	-.11	-1.39
부모-자녀 의사소통	-.14	-2.53*	-.10	-1.99	-.12	-1.70
F	15.81*		11.69*		16.07**	
Adj. R ²	.08		.07		.08	

*p<.05, **p<.01, ***p<.001

다.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대한 가족 체계 변인들의 영향

<표 4>에서와 같이 가족 체계에 해당되는 독립변인들은 전체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8%의 설명력을 가지며, 대구광역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대해 8%, 경북 농어촌 청소년에 대해서는 7%의 설명력을 가진다. 대구광역시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인터넷 사용통제와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 변인이 부적 영향을 미치며, 경북 농어촌 청소년의 경우는 부모의 인터넷 사용통제와 부모의 양육태도 변인이 부적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조사대상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 체계 중에서 부모의 인터넷 사용통제 변인만이 부적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자녀의 인터넷 사용을 통제하지 않을수록 인터넷 중독의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라.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대한 인터넷환경체계 변인들의 영향

<표 5>에 나타난 인터넷환경 체계에 해당되는 독립변인들은 전체 조사대상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15%의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어, 하위 체계 중에서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광역시와 경북 농어촌 청소년의 그것에 대해서는 각각 14%, 16%의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경북 농어촌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가장 잘 설명하는 하위체계였다.

이 체계에 해당되는 모든 변인들이 인터넷 중독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터넷을 쉽게 사용할 수 있을수록, 그리고 인

<표 5>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대한 인터넷환경 체계 변인들의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인	대구광역시		경북 농어촌		전체	
	β	t	β	t	β	t
인터넷 가용성	.16	2.56***	.15	2.47**	.18	2.95**
인터넷 사용시간	.21	3.87***	.26	4.24***	.22	3.71***
PC방 이용환경	.10	1.22*	.14	1.82**	.13	1.76*
F	27.46***		29.11**		28.94**	
Adj. R ²	.14		.16		.15	

*p<.05, **p<.01, ***p<.001

터넷 사용시간이 길수록, 그리고 PC방 이용이 용이할수록 인터넷 중독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마.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대한 교육환경 체계 변인들의 영향

이 체계에 해당되는 독립변인들은 <표 6>에 나타나듯이 전체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14%의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광역시와 경북 농어촌 청소년의 그것에 대해서는 각각 19%, 12%의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대구광역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경향에 대해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진 하위체계로 분석되었다. 전체 조사대상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는 교사의 지지와 친구관계 변인은 인터넷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학업성적과 과외학습 및 여가활동 환경 변인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 청소년들 모두

<표 6>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대한 교육환경 체계 변인들의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인	대구광역시		경북 농어촌		전체	
	β	t	β	t	β	t
교사의 지지	.02	-.95	.03	.67	.06	.89
친구관계	-.03	-.81	-.05	-.97*	-.04	-.84
학업성적	-.22	-3.35**	-.19	-3.15**	-.21	-3.19**
과외학습 및 여가활동환경	-.29	-4.64***	-.11	-1.74**	-.26	-3.83**
F	32.17**		26.24*		29.02*	
Adj. R ²	.19		.12		.14	

*p<.05, **p<.01, ***p<.001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이용할 수 있는 과외학습 환경이나 여가활동의 범위가 좁을수록 인터넷 중독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청소년과는 달리 경북 농어촌 청소년의 경우에는 친구관계도 그들의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인터넷 중독에 대한 생태체계의 하위 체계 및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가. 생태체계의 하위 체계들의 상대적 영향력 분석

두 지역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의 하위 체계, 즉 개인인구학적 체계, 개인심리 체계, 가족 체계, 인터넷환경 체계, 교육환경 체계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7>과 같다.

대구광역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개인인구학적 체계에 해당되는 독립변인군 만의 영향력을 분석한 스텝 I에서 설명력은 9%로 나타났다. 스텝 II에서는 개인심리 체계의 독립변인군을 추가함으로써 설명력은 15%로 증가하여 6%의 설명력 증가율을 보였으며, 스텝 III에서는 가족 체계의 독립변인군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설명력이 2% 증가하여 전체 설명력이 17%로 나타났다. 인터넷환경 체계의 독립변인군을 포함시켜 분석한 스텝 IV에 의하면, 전체 설명력이 25%이며, 8%의 설명력 증가를 보였다. 스텝 V는 교육환경 체계의 독립변인군을 추가하여 분석한 것으로 인터넷 중독에 대한 설명력이 10% 더 증가하여 전체 설명력은 35%로 나타났다. 이 분석을 통해서 대구광역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의 하위체계는 교육환경 체계이며, 그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체계는 인터넷환경 체계임을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경북 농어촌 지역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하위체계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같은 방법으로 분석해본 결과, 개인인구학적 체계에 해당되는 독립변인군 만의 영향력을 분석한 스텝 I에서 설명력은 7%로 나타났다. 스텝 II에서는 개인심리 체계의 독립변인군을 추가

<표 7>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대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하위체계들의 상대적 영향력분석)

독립변인	대구광역시					경북 농어촌					
	스텝 I	스텝 II	스텝 III	스텝 IV	스텝 V	스텝 I	스텝 II	스텝 III	스텝 IV	스텝 V	
	β	β	β	β	β	β	β	β	β	β	
개인 인구학 체계	성별	.25**	.18	.16	.15	.14***	.17*	.14*	.14*	.11*	.10**
	연령 (학년급)	-.19*	-.16*	-.13	-.11	-.09	-.11	-.10	-.09	-.07	-.06
개인 심리 체계	자기존중감		-.15*	-.14**	-.11*	-.09*		-.04*	-.04*	-.03*	-.03*
	자기통제력		-.26***	-.23***	-.20***	-.19***		-.20***	-.19***	-.18***	-.17**
	자기효능감		-.11*	-.10	-.08*	-.07*		-.07*	-.05*	-.04**	-.04**
가족 체계	부모인터넷 사용통제			-.19**	-.17**	-.17**			-.12*	-.10*	-.08*
	부모 양육태도			-.07	-.03	-.02			-.12*	-.09	-.06
	부모-자녀 의사소통			-.10*	-.07	-.05			-.09	-.07	-.06
인터넷 환경 체계	인터넷 가용성				.14***	.13**			.12**	.11*	
	인터넷 사용시간				.20***	.19***			.23***	.21***	
	PC방 이용환경				.12*	.11*			.12*	.10**	
교육 환경 체계	교사의지지					.01				.02	
	친구관계					-.04				-.05*	
	학업성적					-.19***				-.17**	
	과외학습 -여가환경					-.22***				-.14*	
F	12.85*	14.15**	19.28***	21.11**	17.72***	9.21*	8.97**	16.86**	18.21***	13.96***	
Adj. R ²	.09	.15	.17	.25	.35	.07	.13	.15	.24	.31	
Adj. R ² 변화량	-	.06	.02	.08	.10	-	.06	.02	.09	.07	

*p<.05, **p<.01, ***p<.001

주) 성별은 더미변수 처리 (여자=0, 남자=1)

함으로써 설명력은 13%로 증가하여 6%의 설명력 증가율을 보였으며, 스텝 III에서는 가족 체계의 독립변인군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설명력이 2% 증가하여 전체 설명력이 15%로 나타났다. 인터넷환경 체계의 독립변인군을 포함시켜 분석한 스텝 IV에 의하면, 전체 설명력이 24%이며, 9%의 설명력 증가를 보였다. 스텝 V는 교육환경 체계의 독립변

인군을 추가하여 분석한 것으로 인터넷 중독에 대한 설명력이 7% 더 증가하여 전체 설명력은 31%로 나타났다. 이 분석을 통해서 경북 농어촌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의 하위체계는 인터넷환경 체계이며, 그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체계는 교육환경 체계임을 확인할 수 있다.

나.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분석

생태체계에 속하는 개별 독립변인들이 종속변인에 대해 가지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서, 앞서 실시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를 통해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생태체계 내의 독립변인들을 추출한 후, 이 변인들만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종속변인인 인터넷 중독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대구광역시 청소년의 경우에는 10개의 독립변인이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북 농어촌 청소년의 경우에는 11개의 독립변인이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출된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가장 잘 설명하는 독립변인은 과외학습 및 여가활동환경 변인이었으며, 그 다음이 인터넷 사용시간 변인이었다. 대구광역시 청소년의 경우 과외학습 및 여가활동 환경의 범위가 좁고 열악할수록, 인터넷 사용시간이 길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학업 성적이 낮을수록, 부모의 인터넷 사용통제가 약할수록,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인터넷 가용성이 높을수록, PC방 이용이 용이할수록, 자기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인터넷 중독의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경북 농어촌 청소년의 경우에는 인터넷 사용시간 변인이 가장 설명력 있는 독립변인이었으며, 그 다음이 자기통제력 변인이었다. 이들의 인터넷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의 영향은, 인터넷 사용시간이 길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학업 성적이 낮을수록, 과외학습 및 여가활동 환경의 범위가 좁고 열악할수록, 인터넷 가용성이 높을수록, 여

<표 8> 청소년 인터넷 중독 관련 변인들에 대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유의미한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분석)

대구광역시				경북 농어촌			
변인	β	Adj. R ²	Adj. R ² 변화량	변인	β	Adj. R ²	Adj. R ² 변화량
과외학습 및 여가활동환경	-.23***	.09	-	인터넷 사용시간	.20***	.08	-
인터넷 사용시간	.20**	.15	.06	자기통제력	-.19***	.13	.05
자기통제력	-.19**	.19	.04	학업성적	-.17***	.17	.04
학업성적	-.18***	.23	.04	과외학습 및 여가활동환경	-.15**	.20	.03
부모인터넷 사용통제	-.17**	.26	.03	인터넷 가용성	.14**	.22	.02
성별	.15**	.29	.03	성별	.12**	.24	.02
인터넷 가용성	.14*	.31	.02	PC방 이용환경	-.10**	.26	.02
PC방 이용환경	.12*	.33	.02	부모인터넷 사용통제	-.09*	.28	.02
자기존중감	-.10**	.34	.01	친구관계	-.07*	.29	.01
자기효능감	-.08*	.35	.01	자기효능감	-.06**	.30	.01
-	-	-	-	자기존중감	-.04*	.31	.01

*p<.05, **p<.01, ***p<.001

주) 성별은 더미변수 처리 (여자=0, 남자=1)

학생보다는 남학생이, PC방 이용이 용이할수록, 부모의 인터넷 사용통제가 약할수록, 친구관계가 원만하지 못할수록, 자기효능감과 자기존중감이 낮을수록 인터넷 중독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7.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상이한 지역사회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대도시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문제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대도시인 대구광역시와 농어촌지역으로 분류되는 경북 내 군(郡)단위 지역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인터넷 중독에 영

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유형이 어떻게 상이한지, 그리고 그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은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었다. 그리고 이 분야의 기존 연구들은 특정 지역에 한정해서 그 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어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누락되었던 상이한 지역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비교분석을 시도하면서 연구대상의 범위를 확장한 것은 이 분야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기여하고자 한 것은 이차적 목적이었다.

상이한 지역환경, 즉 대도시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문제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대도시인 대구광역시와 농어촌지역으로 분류되는 경북 내 군(郡)단위 지역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생태체계 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한 앞장의 결과들을 논의해보면, 첫째, 대구광역시와 경북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수준을 분석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 청소년 중에서 인터넷 중독군의 비율은 9.9%로, 비슷한 시기에 한국 정부에서 실시한 자료(행정안전부 외 정부 7개 부처, 2011)에서 나타나는 12.4%보다 낮은 중독비율을 보이고 있다.⁵⁾ 또한 대구광역시와 경북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의 평균값은, 각각 42.75점, 48.26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두 지역 간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도시에 비해 농어촌 지역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전체 조사대상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대해 7%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개인인구학적 체계에 해당되는 독립변인군의 영향력을 두 지역 간에 비교해 보면, 대구광역시와 경북 농어촌 지역 모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선행 연구들의 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남자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현상의 원인규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5) 이 연구는 영(1998)의 인터넷 중독척도를 수정·보완한 김은정 외(2003)의 척도를 근거로 조사되었으며, 정부에서 사용한 인터넷 중독척도와 동일하지 않다.

연령(학년급)에 의한 영향력 차이는 대구광역시 청소년의 경우에만 나타나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북 농어촌 청소년이나 전체 조사대상 청소년의 경우에는 연령에 따른 중독 수준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는데, 이는 조사대상의 연령 범위가 작은 데서 기인할 개연성이 있다.

셋째, 전체 조사대상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대해 13%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개인심리 체계의 모든 독립변인들은 두 지역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기존중감이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의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기에 형성되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아의 영역이 클수록 중독의 수준을 낮추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넷째, 가족 체계의 개별 독립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대구광역시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인터넷 사용통제와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 변인이 인터넷 중독에 부적 영향을 미치며, 경북 농어촌 청소년의 경우는 부모의 인터넷 사용통제와 부모의 양육태도 변인이 부적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조사대상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 체계 중에서 부모의 인터넷 사용통제 변인만이 부적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자녀의 인터넷 사용을 통제하지 않을수록 인터넷 중독의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전체 조사대상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하위 체계 중에서 가장 높은 설명력(15%)을 가진 것으로 분석된 인터넷환경 체계는, 경북 농어촌 청소년의 그것에 대해서도 16%의 가장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다. 이 체계에 해당되는 모든 변인들이 대구광역시와 경북 농어촌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쉽게 접속하여 그 속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에 대한 분별력이 약해지고 가상공간을 실제적으

로 수용하게 되는 몰입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섯째, 교육환경 체계의 독립변인군은 전체 조사대상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14%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대구광역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경향에 대해 가장 높은 설명력(19%)을 가진 하위체계로 분석되었다. 두 지역 청소년들 모두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이용할 수 있는 과외학습 환경이 열악하고 여가활동의 범위가 좁을수록 인터넷 중독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학업성적이 인터넷 중독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 결과는 많은 선행 연구들과 일치되고 있다. 그러나 이 변인들 간의 인과성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즉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 학업성적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과적 개연성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또한 농어촌 지역사회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과외학습 기회가 적어 학업성적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여가활동의 범위도 도시 청소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이러한 지역환경이 인터넷 환경에 보다 더 빈번하게 접근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사의 지지 변인은 두 지역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에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형성의 문제로 해석할 수 있으며 차후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된다. 친구관계 변인의 경우, 경북 농어촌 청소년의 경우에서만 그들의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친구관계가 원만하지 못할수록 인터넷 중독에 빠질 개연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곱째, 두 지역 청소년들 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의 하위 체계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개인인구학적 체계 변인군, 개인심리 체계 변인군, 가족 체계 변인군, 인터넷환경 체계 변인군, 교육환경 체계 변인군 등을 순차적으로 포함시켜 분석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대구광역시 청소년의 경우, 종속 변인에 대한 설명력이 순차적으로 9%, 6%, 2%, 8%, 1%씩 증가하여, 전

체 생태체계 독립변인들의 설명력이 35%로 나타났으며, 경북 농어촌 청소년의 경우, 7%, 6%, 2%, 9%, 7%씩 증가하여 전체 설명력이 31%로 나타났다. 이 분석을 통해서 인터넷 중독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하위체계는 대구광역시 청소년의 경우에는 교육환경 체계이며, 경북 농어촌 청소년의 경우에는 인터넷환경 체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앞선 회귀분석에서 추출된 유의한 독립변인들 중에서 인터넷 중독에 가장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생태체계에 속하는 전체 독립변인들 중에서 종속변인에 가장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독립변인은, 대구광역시 청소년의 경우에는 과외학습 및 여가활동 환경 변인이었으며, 그 다음이 인터넷 사용시간 변인이었으며, 경북 농어촌 청소년의 경우에는 인터넷 사용시간 변인이 가장 설명력 있는 독립변인이었으며, 그 다음이 자기통제력 변인이었다.

이상의 비교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두 지역 간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대책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두 지역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하위 생태체계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상이한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인터넷 중독예방 및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대구광역시 청소년의 경우, 교육환경 체계의 영향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 간에 방과후 과외학습의 여지나 여가활동 환경의 차이에 따라 인터넷 중독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학습기회의 확대에 보다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 경북 농어촌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청소년에 비해 인터넷환경 체계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수립에 치중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심리 체계에 해당하는 모든 변인들의 영향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사용자인 청소년 개개인이 인터넷 사용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나 상담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현실과 가상을 분별하며 사유하고

상상할 수 있는 실용적인 인터넷 사용지침의 제공 등과 같은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소비하고 있는 인터넷 사용시간의 양이 두 지역 청소년 모두에서 상위의 유의미한 독립변인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소년 자신이 인터넷 사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율적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한편, 부모들이 자녀들의 인터넷 문화를 이해하고 부모 자신도 인터넷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자녀들과 효율적으로 소통하고 그들의 인터넷 사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모 교육프로그램도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이한 지역사회 환경에 처해있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실태와 문제행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들을 제거해 갈 수 있는 선별적 인터넷 중독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강만철·오익수. 2001. “청소년 인터넷 중독 진단척도 개발(I).” 『교육심리연구』 15(4): 5-21.
- 강만철·오익수. 2002. “청소년 인터넷 중독 진단척도 개발(II).” 『교육심리연구』 16(4): 247-274.
- 강지선. 1999. “PC통신 이용자들의 고독, 사회불안 및 대처방식과 통신중독과의 관계.” 가톨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정혜. 2005.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중독: 시간에 따른 변화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2): 267-280.
- 김광수. 2009. “농어촌지역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연구.” 『사회연구』 18: 143-174.
- 김세영. 1999. “통신중독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세원. 2009. “지역사회특성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28: 102-135.
- 김승옥·김혜수·이경옥. 2007. “아동용 인터넷 게임 중독 척도 개발.” 『아동학회지』 28(6): 37-52.
- 김은정·이세용·오승근. 2003. “한국판 청소년 인터넷 중독 척도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1): 125-139.
- 김진희. 1989. “부모-청소년 자녀 간 의사소통과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과의 관계.”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희·김경신. 2003. “청소년의 심리적 변인과 인터넷 중독, 사이버 관련 비행의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5(1): 85-97.
- 김태현. 2007.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사이버 비행이 충동성 및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숙. 1997. “청소년의 건강행위와 비행의 영향요인에 관한 모형 구축.”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형준·이상준·우정익·조항석·권혁중. 2002.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실태 및 중독관련 요인 분석.” 『가정의학회지』 23(3): 334-343.
- 김혜원. 2001.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현상: 인터넷 중독의 현황과악과 관련변인 분석.” 『청소년학연구』 8(2): 91-117.
- 남현미. 1999.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친구 특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진아·김광웅. 2004.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 체계 변인.” 『청소년상담연구』 12(1): 65-80.
- 박미자·이귀상. 2004.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실태에 관한 연구: 영광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31(2): 589-591.
- 박지원. 1985. “사회적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연구.” 연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2008. 『2008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 서경환. 2007.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정과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운숙. 2004.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과 사이버 일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2): 37-57.
- 송원영. 1998.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이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 석. 2000.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관한 연구-서울 소재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돈규. 2000. “청소년의 감각추구성향과 인터넷중독 경향 및 인터넷 관련 비행간의 상관성.” 『청소년학연구』 7(2): 117-136.
- 양소남. 1997. “PC통신 이용자의 통신중독증에 관한 연구.” 숭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미경. 1997. “감각추구성향과 사회화 요인이 남녀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창규·김진희. 2009.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중독과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인터넷 전자상거래연구』 9(1): 1-26.
- 윤재희. 1999. “인터넷 중독과 우울, 충동성, 감각추구성향 및 대인관계의 연관성.”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혜정. 1993. “청소년의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사회관계망 지지 지각.”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옥·김민하·김승옥·김혜수. 2006. 『유·아동 및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중독 척도 개발연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이계원. 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석봉. 2005. “도시지역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실태와 인터넷 중독 성향: 서해5도와 덕적도를 중심으로.” 충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진·홍세희·박중규. 2005. “청소년의 인터넷중독과 개인적, 가족적 변인간의 연구: 시간에 따른 변화와 상호 연관성.” 『교육심리연구』 19(4): 1179-1197.
- 이숙진. 2007.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기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승국. 1998.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의 영향 분석.” 계명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시형·이세용·김은정·오승근. 2000.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자녀교육』.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 이지항. 2005. “인터넷 환경변인과 중재변인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성향에 미치는 효과.” 숙명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해경. 2002. “인터넷상에서 청소년들의 폭력게임 중독을 예측하는 사회심리적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4): 55-79.
- 이형초·안창일. 2002. “인터넷 게임중독의 진단척도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7(2): 211-239.
- 이형하. 2003. “인터넷 중독정도가 도서지역 청소년의 심리정서, 행동, 학업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0(4): 263-288.
- 전신현. 2004. “거주지역환경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1(2): 1-21.
- 전영자·서문영. 2006. “중·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관련변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3): 13-25.
- 정민희. 2003.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진태. 2003.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남근·양돈규. 2001. “청소년이 자각한 사회적 지지와 인터넷 중독 경향 및 인터넷 관련 비행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1): 91-111.

- 조아미·방희정. 2003. “부모, 교사, 친구의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게임 중독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0(1): 249-275.
- 조운주. 2010. “청소년의 인터넷일탈에 관한 종단적 연구: 잠재성장모형의 적용.” 『청소년학연구』 17(6):171-195.
- 조은영. 2005. “생태체계적 요인이 학교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목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춘범. 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가정 및 학교환경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 인문계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경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춘범. 2010.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중독이 폭력비행에 미치는 영향과 현실지각의 조절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17(8): 129-155.
- 주애란·박인혜. 2005. “중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게임중독, 스트레스 및 임파워먼트 수준의 차이.” 『청소년복지연구』 7(2):37-57.
- 천정웅. 2000. “청소년 사이버일탈의 특성과 유형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7(2): 97-116.
- 청소년보호위원회. 2000. “인터넷 환경이 청소년의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1.
- 최은정·김형모. 2006.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중독이 학교폭력 인식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8(1): 33-50.
- 최효순. 2001. “초기 청소년들의 진로태도 성숙과 사회 환경 및 개인 변인과의 인과분석.” 건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탁수연·박영신·김의철. 2007. “고등학생의 사이버일탈과 인간관계: 심리특성 및 행동특성의 관계분석.” 『청소년학연구』 14(4):233-258.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11. 『2010년 정보문화 실태조사』. 행정안전부·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7. 『2007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조사보고. 07-06.

-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1998. 『정보사회와 청소년: 통신중독증』.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 한복희. 2001. “인터넷 중독정도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심리사회적 역기능에 관한 연구.” 한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행정안전부 외 정부 7개 부처. 2011. 『2010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행정안전부.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125.
- Barnes, G. M. & M. P. Farrell. 1993. “Family Systems and Social Support: A Test of the Effects of Cohesion and Adaptability on the Functioning of Parents and Adolescent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5(1): 119-163.
- Bronfenbrenner, Urie.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uckley, W. 1967. “Systems and Entities.” In W. Buckley (ed.). *Sociology and Modern Systems Theory*. NJ: Prentice-Hall. pp. 42-66.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CA: Freeman Press.
- Gegas, V. & M. Seff. 1981. “Families and Adolescents: A Review of the 1980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2(4): 941-958.
- Goldberg, Ivan. 1996. “Internet Addiction: Electronic Message Posted to Research Discussion List.” <<http://users.rider.edu/~suler/psyber/supportgp.html>>.
- Hirschi, T. & M. R. Gottfredson.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Palo Alto,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Louge, A. W. 1995. *Self-Control: Waiting Until Tomorrow for What You Want Today*. NJ: Prentice Hall.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Sherer, M, J. Maddux, B. Mercandante, S. Prentice-Dunn. & B. Jacobs. 1982. "The Self Esteem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 51: 663-671.

Young, K. S. 1996.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1(3): 237-249.

Young, K. S. 1998. *Caught in the Net: How to Recognize the Signs of Internet Addiction and a Winning Strategy for Recovery*. New York, NY: John Wiley & Sons, Inc.

김광수는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고, 대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의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논문은 "청소년기의 자살인지양식에 대한 환경요인의 영향"(2005), "농어촌지역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 체계 변인 연구"(2009),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위탁형 대안교육의 방향모색"(2010), 등이 있으며, 저서로 『한국 청소년의 사회심리와 일탈행위』(2007) 등이 있다. 주요 연구관심 분야는 사회정책, 정치사회학, 사회계층 분야이다.

[2011. 5. 12. 접수; 2011. 6. 10. 수정; 2011. 6. 13. 채택]